

“돕는 배필”

베드로전서 3장 1-6절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찾고 원리대로 돌아갈 때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됩니다. 기계도 작동법대로 작동해야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정경은 헬라어에서 파생한 canon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캐논은 히브리어 카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네는 물건을 쥔 때 갈대의 중간부분으로 진리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삶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인생원리 교과서입니다. 성도는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원리에 근거해 풀어야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는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생활을 누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성공적인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한 결혼생활의 청사진을 따라가는 것이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 아담의 가정에 아내로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잘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는데 하와가 먼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가정의 행복과 비극은 사실 아내로 인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2. 아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자기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주는 데로 먹어버렸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중에도 겉으로는 부인한테 큰소리 치는 것 같이 말하고 보이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부인에게 말도 크게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만큼 가정에서는 아내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부인들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에 흠인 아담보다 갈비뼈인 양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을 못 이깁니다.

또 성경에는 여자가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잠 14: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시집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와 살아가면서 점점 집안이 불일 듯 일어나고, 가문에서 좋은 인물이 나왔다면 이 여인은 그 집을 세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만듭니다. 가정은 여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여자는 남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면 남자는 평생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권면하십니까?

1)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정에 대한 남편에게 복종으로 시작합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 3:18)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을 하느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자들아 라고 하지 않고 아내들아 라고 했습니다. 가정입니다. 능력 있는 여성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남편의 아내일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정에 대한 남편에게 복종으로 시작합니다. 여성이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녀 평등인데 왜 여자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가부장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이지 남편한테 순복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남자가 잘하지도 않는데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래도 본문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지 위해 두번이나 누이라고 속여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라는 남의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주라고 받들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직한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남편 말에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했는데 이와 같이란 베드로전서 2:13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를 따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사이에 분명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부부사이에 남편이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 머리가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질서에 대해 하나님은 회사에서의 질서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 순종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요, 지식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세운 질서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세운 질서를 따라 남자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좀 부족해도, 까다로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 머리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높여야 합니다. 남편 위에 오르려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기를 꺾으려 하면 안 됩니다. 까다로운 남편도 하나님 때문에 높여주어야 합니다. 남편을 굴복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언제나 열등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오기가 나서 더욱 열심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정 반대입니다. 사실은 남편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늘 열등감에 쌓이거나, 남에게 공격적이 되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다른 이성애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가정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아내가 순복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높일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처음에는 핍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는 아내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 2) 어질고 온유한 마음의 아내입니다.

잠언 12:4을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옥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명심보감에도 어진 여인은 남편을 귀하게 만들지만 악한 여인은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진 여인은 남편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조금 미흡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자존심을 지켜주고 내일을 도모 해야지, 화가 난다고, 바로 남편에게 자존심을 굽는 소리를 해 대면 행복을 밟는 것입니다.

### 3) 믿음의 아내입니다.

잠언 31:10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모래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언 31:30-31에 말씀하셨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믿음 있는 여인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느리를 볼 때에 인물이나 집안보다 예수 잘 믿는 것 보고 무조건 데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며느리를 받아드리면 온 집안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나눔의 시간

1.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2. 당신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편입니까?
3.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이해하고 격려하는 편입니까?